

IMTV 제공

금월도(錦月島)

3부

백발무당



S#1. 악몽(몽타주)

- (2부 23썸)

검은 눈 화장과 붉은 입술이 흡사 저승사자 같은 촌주.
당산나무의 묶여있는 죄인(소년) 이마의 둥근원 C.U.
햇불든 마을 사람 표정. 안타까움. 촌주에 대한 분노. 절망같은

(audio- insert) 화면위에 촌주가 하는 말이 흐르고

“그분의 뜻을 어기고 섬을 떠나는 자,
물에 나가 생피를 탐하는 자.
금월도를 외부에 알려 위태롭게 만든 자는
규율대로 반드시 죽음에 이를 것이다”

-(2부 25썸)

피가 흘러내리는 민숙, 눈을 번쩍 뜨며 ‘가!... 가!’

수리영(E)

아아악-

S#2. 방 안 / D

눈을 번쩍 뜬 수리영, 자신을 내려다보는 차가운 낮빛의 영란.
화들짝 놀라 영란을 밀치고 뒤로 주춤한다. 식은땀에 두려움 가득한 얼굴

수리영

저리가! 가라고! 당신이 엄마를 죽였어. 엄마를!

영란

(동요없이 관찰)...

신이

(방안에 뛰어들어와) 어, 어? 왜 이래?

수리영, 신이를 뿌리치고 맨발로 도망치듯 달려나간다.

S#3. 해안가 당산나무 / D

산비탈을 내려와 해안가로 무작정 달리던 수리영.
 어젯밤 예식이 당산나무를 찾아 헤맨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나무도 소년도 보이지 않더니...
 피흘리는 소년이 보이는 거 같아 다가가면 나무뿐이고,
 주위의 모든 사물이 커졌다 작아지길 반복한다
 극심한 현기증에 호흡이 가빠지고 마침내 심한 구토를 하는 수리영.

지친 몸을 일으켜 해안을 따라 인우 선착장으로 향하는...

S#4. 해안가 선착장 / D

돛을 올리고 선착장을 떠나 유유히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발견한다.
 자기가 타고 왔던 인우의 배다.

S#5. 배 안 / D

인우

‘저- 저’ 뱃머리를 돌릴까요?

황씨

(보면서)아니다. 촌주님 허락이 없잖니.

조타실로 들어가는 황씨.
 갑판에서 안타깝게 수리영을 바라보던 인우,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손을 뻗쳐 수리영에게 신호를 보낸다.
 ‘뒤를 돌아봐!, 돌아보라고!’

S#6. 선착장 / D

인우의 손이 무엇을 향하는지 지켜보다가 겨우 알아듣고 인우 손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본다. 뒤돌아보니 뭔가 지붕 같은 것이 보인다.

그곳으로 터덜터덜 올라가는 수리영
 슬레이트로 만든 작은 집.
 발바닥에 피가 맺힌. 신열이 오르는지 몹시도 초췌한 수리영.
 틈마루에 그대로 쓰러진다.

S#7. 영란집 마당 / D

마당에 서있는 촌주. 신이 혈레벌떡 들어온다.

신이

없는데요....어쨌죠?

춘주

흠... 배는?

신이

황씨 아재와 인우는 떠났을 거구요. 산들이는 낚시꾼들과
배타고 나갔습니다

S#8. 포구 어시장 / D

망망대해에 인우의 배가 두둥실. 작은 섬들이 보이고. 맑은 하늘.
북적이는 어시장. 황씨와 인우가 상점을 드나들며 물건을 대량으로 주문하는
듯한 모습 보인다.
어시장에서 사들인 물건(박스)를 부지런히 배에 싣고 있다.

혜수(E)

인간의 종이 아닐 수도 있다구?! 그게 무슨 얘기야? 시료가
섞인 거 아냐?!

S#9. 차 안 / D

달리고 있는 차안, 조수석에 분석자료 있고, 블루투스 폰으로 대화하는 혜수.
톤이 높고 거칠다.

분석관(E)

제대로 했어. 우리도 당황해서 너한테 먼저 보여준 거야.
실험, 분석, 배양하고 또 했어. 근데 ‘인간의 분류기준’에서
계속 튕겨 나가는데, 그럼 뭐라고 쓰냐! (혜수와는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다)

혜수

튀긴다고?

S#10. 국과수 앞 / D

차에 내려 뛰어 들어 가는 혜수,
손에 국과수 분석지(금월산과 효장동사건)가 들려있다.

S#11. 분석실 안 / D

물어뜯겨 얼굴이 뭉개진 상처 C.U. (영상자료)

분석실험 기구 앞에 앉아 있는 분석팀장(50대 초반), 헤수를 올려다보며

분석팀장

자세히 봐, 물린 치열이 두 점이 아냐. 치열전체야. 일반적인 동물은 아닌 거지. 그렇다고 인간도 아냐. 여기 타액의 DNA 분석을 했는데, 인간 패턴이 아냐.

헤수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다. 그럼 뭔데요?
두 사건의 가해자가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분석팀장

(고개 끄덕) 거기에다... 집단성도 보여. DNA검사로는

헤수

집단성?! 설마... 한동네 사람들끼리... 같은 피를 돌려쓴다는
뭐 그런 거예요?

분석팀장

빨리 알아듣네. 뭐 그런 셈이지. 서로 섞고, 물려주고 같은
피를 계속 돌려쓰고. 폐쇄적인 집단일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줄고 특정 패턴이 뭉쳐서 나타나거든.

분석관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로 아닌 어떤 집단성을 가진 놈들이
도시를 활보하며 사람을 죽이고 있다. 그거 예요?!
미치고 환장 하겠네.

그때 헤수 폰이 울린다. 김형사다!

김형사(E)

(다급하게) 선배님, 출동이요!

헤수

왜?

김형사(E)

포구에 여자 시신이 한 구 떠내려 왔는데...

헤수

왔는데, 뭐?

김형사(E)

강민숙인 거 같습니다. 아직 최종결과 나온 것은 아니지만,

!!! 놀라는 혜수, 말끝나기가 무섭게 뛰쳐나간다.

S#12. 포구 사체 현장 / D

폴리스라인이 쳐진 현장, 취재진은 출입통제. 전문경찰팀이 사진찍고
감식하는.. 폴리스 라인을 넘어 들어가는 혜수.

시신의 얼굴을 덮은 비닐을 들쳐본다.

얼굴이 몽개져있고, 눈구멍으로 굶은 지렁이가 쓰욱 나오는

시신의 오른쪽 손목을 보니 ‘원’ 문신이 있다. 그렇다면 민숙이가 맞다.

충격에 빠진 혜수 곁에 다가온 김형사,

김형사

맞죠? 인상착의는 비슷한 거 같은데.

혜수

(침통한)... 또 당한 건가... 그 놈들한테.

김형사

(혜수 뒤를 쫓으며) 누구한테요? 용의자가 있어요?

무시하고 바로 자기 차에 오르는 혜수

S#13. 차 안 / D

도심 속 차량 행렬

혜수, 수리영에게 전화를 건다. 뚜뚜 신호는 가지만 받지 않는 수리영.

초조하게 손톱 물어뜯으며, 다시 수리영에게 전화를 건다.

띠리리~~~이젠 아예 연결이 안 된다는 소리만 들린다.

핸들에 머리 박으며.

혜수

영아, 대체 너 어딴는 거니...

S#14. 식당 안 / D

국밥을 게걸스럽게 퍼먹는 수리영.

끼니조차 챙겨 먹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 국밥을 달라는 것에
적잖이 당황한 영란과 신이.
맞은 편에 앉아있는 영란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다.

S#15. 식당 부근 / 해질 무렵

도시에서 사 온 짐을 연신 옮기는 황씨와 인우.
먼지를 훌훌 털고 식당으로 향한다.

S#16. 식당 안 / 해질 무렵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황씨와 인우, 인우 순간 수리영과 눈이 마주치고.
촌주인 영란과 마주 앉아 있는데, 팽팽한 긴장함.
사태를 파악하고 빗장을 채운 뒤 슬금슬금 식당 한 칸에 앉는 황씨.

영란

고기를 못 먹는다지 않았니?

수리영

그러게요... (한참을 노려보더니) 엄마를... 죽였나요?
나무에 매단 아이처럼.

영란

뭐?!

신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생각에) 아, 아냐. 그거 아냐!

수리영

(신이에게) 그럼 뭔데요? 왜 말을 못해요?!

수리영, 말 끝나기가 무섭게 고통스런 눈빛을 하며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
사지가 비틀리고 눈이 돌아가는... 절망이 배여있는 슬픈 얼굴로 바라보는 영란,
놀란 인우, 달려와 수리영에게 응급처치를 한다. 몸을 돌려 호흡을 시키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S#17. 몽타주 / N

- 휘영청 달이 차오르기 시작한다.
높게 일렁이는 파도 소리가 더 을씨년스럽다.
- 누워있는 수리영. 신음소리를 내며 자고 있다,
- 영란집 지붕에 올라가 어슬렁 거리는 고양이, 두리번거리는 눈.

S#18. 집 마루 / N

그때 바람이 획~ 불더니 대문이 확 열린다.
 마루에 촛불을 켜놓고 정좌하고 있던 영란 앞으로
 카메라 툭툭 끊기며 다가간다.(L.S/M.S/T.S 초월적 존재가 다가오는)
 영란, 자세를 고쳐 앉고 애절한 눈으로 바라본다.(허공이다)
 또다시 바람이 휘익- 불더니 촛불이 훅 꺼진다.
 절망스런 표정의 영란.

S#19. 바다, 산들 배 / N

낙시꾼들 어울려 술을 마시며 고기 잡느라 여념이 없다.
 깔깔 웃으며 이들을 바라보는 산들.
 순간 눈동자에 붉은 빛이 돌고... 손에는 사시미 칼. 펙!
 회를 치면서 낙시꾼들 장단에 맞춰준다.

S#20. 황씨 집 마당 / 새벽녘

골목길을 바삐 걸어가는 여자 신발. 어느 집 울타리 앞에 멈춰선다.
 영란이다. ‘흐흠!’ 기침하자 곧바로 옷을 주섬주섬 입으며 문 열고 나오는 황씨

황씨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

영란

곧 보름이잖나. 만 번째 달이 뜨는 만월.

황씨

그렇습죠.

영란

늘 험한 일을 맡겨서 미안하네만, 그 아이를 물으로
 보내야겠네. 만월 전에.

황씨

(눈치) ‘그분’의 허락 없어요? 신 씨한테서 전갈이 왔습니다.
 촌주님 뵙자고. 지금 그냥 보내면...

영란

(먼 곳을 쳐다보는 영란)… …

황씨

알겠습니다. (안심시키며) 파도가 잦아드는 대로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S#21. 황씨 집앞 골목길 / D

영란이 황씨 집을 나와 식당으로 가는 길,
멀리서 휘적거리며 대낮부터 술에 취해 걸어오는 산들을 본다.
산들도 영란을 봤는지 눈을 희 번득하게 뜬다.
그냥 지나치려는 영란의 팔을 잡는 산들.
영란이 팔을 탁 쳐내며 노여워한다. 그 모습을 본 산들이 건들거리며.

산들

만월 잔치에 뭘 도와드리면 좋으려나~ 아, 아니지. 그 애가
도와주려나. 촌주님 손녀요. 그쵸?

영란

네가 지금 감히 그 애를 입에 담다니?!

산들

어쨌쵸. 이미 섬에 소문이 째악 퍼졌어요. ㅎㅎ.

영란

헛짓 하지 마라. 새들도 나뭇가지를 가려서 앉는다.

S#22. 황씨 집 방안 / D

황씨가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리고 있다. 상에 놓여있는 사진은 젊은 남자
(인우의 아빠이며 황씨 친구) 얼굴. 아버지 제사상에 사과를 올리는 인우.
그리고 그 옆엔 아직 핏기가 가시지 않은 생고기도 큼지막하게 올라가 있다.
이때, 방문 열리며 등장하는 산들.

산들

(통명스럽게) 촌주님은 왜 오셨대?
(방안에 들어와 제사상 보고 급 분노) 뭐 하세요, 지금?

황씨

(슬쩍 봤다가 다시 상 차리며) 보면 알 거 아니냐.
절 올릴 거 아니면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 있어라.

산들

아아악! 씨발! 그러니까 왜 제사를 지내냐구!
인간하고 붙어먹은 놈을!!

인우, 산들을 노려볼 뿐 가만히 앉아 있다.
산들 갑자기 제사상 앞에 앉아 상위에 있는 술을 제 입에 들이부으며.

산들

뒤지지도 않고 여길 빠져나간 년이 지 새끼를 보내질 않나,
그걸 또 애지중지하는 촌주는 또 뭐고! (화를 내다 너털웃음)
푸하하.

웃긴 건 뭘 줄 알아? (인우 보며) 너 같이 더러운 잡종을
기어이 찾아내서 키운 저 영감탱이지. 당장 꺼져!

산들의 행패를 무시하고 황씨는 술병을 새로 바꾸고 인우에게 절하라고 한다.
인우, 절을 한번 하고 또 하려는데, 산들 보란 듯이 제사상을 발로 걷어차며

산들

내가 다 죽여 버릴 거야! (인우 보며) 어때? 약 오르지?
뭘 꼬라 봐. 새끼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인우, 산들의 먹살을 잡고 마당에 내다 쫓는다.

S#23. 황씨 집 마당 / D

인우 뒷마루에서 내려오고, 산들 슬슬 일어나며

산들

그래 덤벼, 덤벼봐! 잡종 주제에! 촌주 뒷배 믿고 까부는데 흥!
덤벼 이 잡종새끼야..

말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인우에게 달려들어 인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로 눕혀 목을 물어뜯으려는 산들,
인우의 눈이 푸른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자 무릎으로 산들의 머리를 가격하며
재빠르게 일어난다. 산들 재밌다는 표정을 지으며 완력으로 인우를 들어 올리려는데
쉽지 않다. 그러는 사이 인우 산들을 발로 가격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산들의 얼굴을 마구 때린다. 한 대 두 대...입에서 피가 나는 산들.
이때 영정사진을 들고 둘 사이를 막아서는 황씨,

황씨

인우야, 가라. 미안하다.

황씨의 애절한 표정에 사진들 받고 돌아서 말없이 가버리는 인우.
썩썩거리며 누워서 짐승 소리를 내며 분노하는 산들,
그런 산들을 노려보다 방안으로 확 들어가는 황씨.

S#24. 금월도 해변가 / 해질 무렵

배 안에 아버지 영정 액자를 놓고 홀로 술 한 모금 마시다가
바다에 술을 뿌리는 인우. 슬픈 얼굴로 바닷가를 망연자실 바라보고
있다. 인우 얼굴 클로즈업.

S#25. 금월도 산길 / 해질 무렵

산길을 오르는 영란,
꽃꽂한 자세로 흐트러짐 없이 오르는 영란과 달리 산길을 기어가다시피 하며 힘들
게 따라가는 수리영. 사위는 조용하고 수풀을 헤치는 발자국 소리뿐.

수리영

(긴장을 풀지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엄마에 대해 답을 주신다면서요?

이때 수풀에서 뭔가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면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진다.
놀라서 걸음을 멈춘 수리영.

영란

여긴 발에 차이는 게 산짐승이다. 지금부터는 녀석들이 움직일
시간이니 조심해라.

그렇게 한참을 더 걸어 능선위에 보이는데.

영란

다 왔다.

S#26. 금월산 / 해질 무렵

험한 산길과 달리 꼭대기 능선에 당도하자 넓은 공터가 보인다.
이런 곳이 공터가...? 수리영의 눈에 암자인 듯한 작은 초막(이하 반월암) 한 채가 보인다. '반월암'이라 쓰여 있는 암자로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는 영란.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

영란(E)

들어오지않고!

S#27. 반월암 실내 / 해질 무렵

기둥에는 오색의 천이 휘감긴 채로 묶여있고,
제단 중앙에는 향이 타들어 가고 있다.
향로가 놓인 제단을 바라보며 흰 무복을 차려입은
노파가 뭔가를 중얼거리며 기도중이다.
나름의 예식이 끝난 듯, 백발을 땅아 붉은 끈으로 틀어 올린 노파가 천천히
돌아보며 수리영을 마주한다. 너무나도 낮은 공간이 두려운..

무당 신씨

네가 그 아이로구나.

영란에게 정중히 합장하며, 예를 갖추는 무당 신씨.
그러더니 촛불을 수리영의 얼굴에 비추며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짓는 백발무당.

다가와 수리영의 어깨를 잡는데 흠칫 놀라는 수리영,
알 수 없는 무당의 강렬한 힘(눈빛)에 압도당해 미동도 할 수 없는..

무당 신씨

많이 컸구나.

수리영

네?!

뭔가 말을 보태려는 영란에게 눈짓을 한다. 조용히 옆으로 비켜서는 영란
무당은 다시 혼자 주문을 외우는데...무당이 눈을 뜨자

수리영

저를.. 아세요? 그럼 저희 엄마도요?

무당 신씨

알다마다. 굳세고 아름다웠지. (다가와 수리영의 얼굴을
매만지며) 내 눈을 보라.

거부하지 못하는 끌림에 따라 수리영은 무당 신씨의 눈을 응시한다.
무당신씨의 눈이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기겁하는 수리영.
뒤로 주춤하자 수리영의 상의를 찢고 가슴과 어깨를 살피는 무당신씨.

수리영

왜!... 왜 이러세요?!!

어깨 언저리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문신.
얼핏 반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녹각 뿔 모양이다.
녹각 문신을 발견하자 낮빛이 바뀌는 노파, 눈이 반짝거린다.
다가와서 수리영의 어깨 문신을 보는 넘겨다 보는 영란. 표정이 어두워진다.

무당 신씨

어쩌다 이 작은 몸뚱이에...(혀를 차며) 쫓쫓.

영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잖나?

무당 신씨

그렇긴 하죠. (수리영에게) 어디 두었니? 녹각 목걸이 말이다.

수리영

녹각... 목걸이요?

무당 신씨

분명 네 엄마가 네게 주었을 것이다.

수리영

(단호하게)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불만스럽게 영란에게) 저
여기 계속 있어야 해요?!

무당 신씨

(의미심장한 미소 지으며) 가라. 가서 목걸이를 찾아라!

영란의 슬픈 눈의 의미를 알길 없는 수리영. 암자를 나온다.

S#28. 산속 / 해질 무렵

왔던 길을 내려가는 수리영, 그녀를 주시하는 누군가.
눈치채지 못하는 수리영.

영란(E)

그 애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네.

S#29. 반월암 실내 / 해질 무렵

무당 신씨와 영란이 마주 앉아있다. 팽팽한 긴장감.

영란

이 섬에 대해서도, 지 엄마에 대해서도. 그냥 평범한
아일세..... 심지어 고기도 못 먹고, 냄새만 맡아도 토하고
허약해.

무당 신씨

(영란을 빤히 쳐다볼 뿐)...

영란

신이가 있지 않나. 그 아이는 준비를 다 마쳤네.

무당 신씨

그때 따님 빼돌리듯 저 아일 물으로 보내시려는 겁니까?

영란

뭐라?!

표정을 읽어낼 수 없는 얼굴로 영란을 보는 무당 신씨.
부들부들 떨리는 영란의 손을 주름진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며.

무당 신씨

모든 것은 ‘그분’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S#30. 산 중턱 / 해질 무렵

나무 사이를 헤치며 나타나는 수리영.
산길을 따라 당도한 곳엔 사람들이 조성해놓은 듯한 널따란 공터가 있고,
가장자리로 다가가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다.
공터를 제대로 살펴보는 수리영.

제단 주변을 둘러싼 나무엔 사람들이 직접 만든 것 같은 등이 걸려 있다.
희미한 불빛 사이에 자리한 제단 주변으로 일정치 않은 물길이 보인다.
제단 주변에 다가가 쪼그리고 앉는 수리영.

수로 위의 검게 변한 흙을 손으로 만져보다가 얼굴 가까이 가져가 냄새를
맡아보려는 순간!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동물의 기괴한 울음소리(E).
수리영의 눈빛이 점점 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환영이 보이는 수리영이다.

S#31. 수리영 환상 / (만월제 컷 활용)

- 1. 제단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동물들. 동동 복치는 모습 T.S
- 2. 어떤 인영의 날랜 발걸음 T.S
- 3. 피를 빨아들이는 인영, 붉은 눈 T.S
- 4 만월의 달, 검은 구름. 일렁이는 파도
- 5 벼랑 끝에 선 여인

S#32. 절벽 앞 / N

초점 없는 눈으로 낭떠러지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어떤 '여인',
그 '여인'이 수리영으로 오버랩되고(마치 병의하듯).
한 발자국 더 내디디면 바로 절벽 아래 바윗돌 위로 떨어진다.
위기의 순간, 수리영의 팔을 잡아채는 누군가, 인우다.

인우

뭐하는 거야! 떨어져 죽으려고!

수리영

(초점 풀린 눈이 인우를 향하는)...

순간 스르륵 힘 풀리며 인우쪽으로 풀썩 쏟아져 내리는 수리영.
수리영을 안은 채 달빛 쏟아지는 하늘을 원망 섞인 눈으로 올려다본다.

3부 END